


서울대 연합종강예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



6월 8일 수요일
늦은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문의: 서기연 대표 조혜상 (010-6667-9185)
blog.naver.com/snujesus
facebook.com/jesusnu
서울대기독교연합

강사: 양희승 대표
89' 서울대 전기공학부
트리니티 칼리지 (BA)
린던신학교 (MA)
뽕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

종강예배

6월 8일 수요일 늦은 6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종강예배가 열린다.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승 대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13:36)"를 주제로 설교한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김준재 간사
- 2면 학생기자 퇴임사 ... 황수연
단대기연 사역 간증 ... 박호진
- 3면 새내기의 글 ... 강하은
연합사역 보고 ... 배소정
- 4면 학생사역자 칼럼 ... 이경진
- 5면 기독교인 선배의 글 ... 현지윤
- 6면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소식 ... 임재훈
- 7면 생활공동체 간증 ... 홍민기
이 한 권의 책 ... 곽태예
- 8면 2016년 1학기 캠퍼스 이모저모

간사칼럼

연합을 위한 두드림

현실은 종종 우리의 소망을 배신한다. 중간을 넘어선 캠퍼스의 상황이 그렇다. 새 학기의 소망과 기대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부담과 절망이 마음을 파고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걸음은 무디어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붙잡았던 손도 다소 느슨해졌다. 관악의 골짜기에 복음의 소리보다는 욕망과 쾌락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들의 소리는 더 조직적이고 호소력 있게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들의 공연을 집중하여 바라본다. 거기에서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그와 비례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었다. 캠퍼스를 복음화하겠다는 우리의 소망은 절망과 낙담으로 이어질 태세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우리들도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라 예고하셨다. 심지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셨다(마 5:11-12). 또한 그렇게 고독하고 힘든 여정을 기도를 통해 뚫고 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하셨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셨다.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은 그분이 가르치신 기도로 가능해진다. 그렇다. 기도는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짖음이다. 힘을 잃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제공되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느슨해진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모음으로, 함께 잡은 복음을 위한 연합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다. 기도의 교훈을 다시금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자.

누가복음 11:5-8을 보면 기도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간청함이다. 밤중에 찾아온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간청함"이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주장이 불편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소돔을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일화를 떠올려 보라. 하나님은 소돔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그 성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치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의 청원을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뿐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멸망의 계획은 모세의 기도로 수정된다(출 32장).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

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주한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인내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주인공의 간절함은 대답 없는 이웃의 냉담함에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웃이 응답할 때까지 간청한다. 캠퍼스 복음화와 기독교인들의 연합을 위한 우리의 간절함은 자기 맘 같지 않은 지체들과 냉담한 친구들로 인해 낙심할 수 있다. 뜨겁게 타올랐던 열정이 한 번의 실패로 냉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장의 설명이 특이하다.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막아선 존재들로 인해 응답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단 10:12-14). 다시 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이것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기까지는 답답할 수 있다. 우리는 응답받는 순간까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내해야 한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오히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서는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이든, 쾌락과 욕망의 질서에 대항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자. 무엇보다 캠퍼스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공동체들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자. 그로 말미암아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 걸음을 기도함으로 걷고, 인내함으로 걸어냄으로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자. 기도의 두드림으로 복음의 리듬을 회복하고, 관악산 골짜기마다 복음의 노래 가락이 퍼지기를 소망해보자.

김준재 간사 (SFC)

학생기자 퇴임사

기록, 그리고 나눔



안녕하세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된 학생기자 황수연입니다. 학생기자를 퇴임하며 느끼는 감사의 제목들을 《진리는 나의 빛》 독자분들과 나누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양하게 고백하고 풍성하게 나누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

나눔은 정말 광대하셔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다른 모습과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을 미처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의 나눔과 글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거나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다시금 되새기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진리는 나의 빛》이 독자 여러분께 하나님에 대한 캠퍼스 지체들의 풍성한 고백을 잘 전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언제부터인가 기정사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사역이 잘 되지 않고, 리더십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모임 하나를 세우려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공동체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

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나의 빛》이 한 번도 백지로 발행되지 않고 나눔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물론 거창하고 위대한 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글들이 소박했고, 어쩌면 그래서 더 진솔했습니다. 생활공동체에 살면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 기독교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느끼는 점, 생활전선에 있는 직장인 선배의 조언, 단대기연이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 캠퍼스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함께 고백을 나눌 지체들도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나눔의 내용도 더없이 풍성합니다. 저는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인데, 기고자 분들이 보내주신 원고를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학생기자로 섬기는 동안 기고에 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친한 분께, 때로는 어색한 분께, 아주 가끔은 일면식도 없는 분께 기고를 요청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한 편의 글을 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글로써 캠퍼스에서의 삶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주셨습니다. 특히 교수칼럼과 간사칼럼은 주제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기고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연구와 사역으로 바쁘신 와중에 좋은 글로 기고해 주신 교수님, 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공동체 소식을 보내준 단대기연·선교단체 대표들, 각종 행사 사진을 제공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나의 빛》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들이 캠퍼스 안팎에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종종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을 때도 있었는데, 저의 사진기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멋지고 예쁜 지체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

쉽고 미안합니다. 또한, 4번의 신문 편집을 하는 동안 때때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미숙함과 실수를 너그러이 바로잡아 주신 유용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사건사고가 많아서 여러모로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서기연 블로그(blog.naver.com/snujesus)를 만들어서 무려 1994년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나온 《진리는 나의 빛》 80여 호를 온라인에 게시해 준 2015년도 중앙위원단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될 수 있는 대로 톡톡이 글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글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글을 쓰는 것까진 팬클럽만 글을 나누는 일이 종종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나눔의 통로로 《진리는 나의 빛》을 떠올려주세요. 요즘은 다들 SNS에 나눔 많이 하시지만, 종이신문이 가진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기자로 활동한 1년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를 이어서 학생기자가 되는 한상휘 형제가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캠퍼스 안에 좋은 소식이나 널리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상휘한테 다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거창하진 않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땀 흘리는 서울대학교 지체들의 고백이 앞으로도 풍성하게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황수연 (외교12)

단대기연 사역 간증

주님과 함께 한 1년 반 동안의 시간

안녕하세요. 사회교육과 13학번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 1학기부터 사범기연 대표를 맡았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단대기연 대표로 세 학기를 보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지치고 힘들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사범기연에서 주님과 함께 한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범기연 대표를 맡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사역의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루 선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재생산하는 제자,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삶,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기도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라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그 곳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주장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범기연 대표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이를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수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신명기 11장 13-15절(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룬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범기연을 섬길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범기연 대표를 맡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범기연 대표로서 가장 큰 고민은 '단대기연이 선교단체와 교회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단대기연보다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단대기연이 항상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저는 자주 목격했고 단대기연의 정체성에 회의

를 품는 친구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대기연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사범기연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35절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범기연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할 수 없는 영역 중 사범기연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소한의 일만 해서 최대한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사범기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사범기연은 지난 세 학기 동안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범기연 기도회, 새터 꿀물봉사, 지도교수님과의 식사 교제, 여명학교 교육봉사, 사범기연 MT, 복음자리, 사범대 동아리소개제 솜사탕 나눔, 시험기간 간식나눔까지. 단대기연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서로가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마음을 모으기 쉬웠고 결과적으로 많은 일들을 부담 없이 기뻐하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사범기연에서 서로 사랑한 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각자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사범기연 기도회에서 서울대 캠퍼스와 사범대를 위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진실로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물론 대표로 섬기면서 쉽지 않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지칠 때도 있었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례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십자가의 형벌에 비하면 제가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대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범기연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대표와 앞으로의 사범기연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은 캠퍼스 생활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부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 두루 다니며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울대 형제자매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차고 넘칠 것 소망합니다.

박호진 (사회교육13)

세네기의 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온 인문광역 1학년 강하은입니다. 작년 이맘 때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불안에 사로잡혀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때를 떠올리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도 귀하게 다가오네요.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제 마음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닿기를 기도하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17년째, 충주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딸'이라는 명칭은 저의 두 번째 이름처럼 따라다녔고, 저는 이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수요일예배, 토요일학생예배는 물론 새벽기도주간에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나가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대부분의 시간을 꾸벅꾸벅 조는 데에 보냈지만, 제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실컷 즐기고 일어나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싫은 말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치밀어 올라 제 안의 불길을 마구 뿜어내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불길을 발로 꼭꼭 밟아서 끄곤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일련의 의무감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온 마음을 쏟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어른들끼리의 사건이라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 말입니다. 다만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저와 거의 10여 년의 시간동안 함께 교회에서 뛰어놀던 친구와 언니들이 저희 교회를 목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 꽂 차던 교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을 보며 저는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떠나간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날이 갈수록 분노로 변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어?' 제가 그들에게 쏟은 사랑이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었고, 쉽게 정을 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쥐짫자 어차피 떠나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과 배신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잘 머무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저한테 이리되면 안 되죠.' 한동안 하나님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보낼 거면 왜 아با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속물인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구한 것은 모두 얻어냈습니다. 내신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되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했더니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셨으니, 내가 힘들었던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뻔뻔한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도 저는 주님께 삐져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떼쓰는 어린아이마냥 일부러 말씀을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계속 기다려주셨고, 저를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셨습니다. 인문광역으로 들어온 저는 종교학과반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종교학과반에 배정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화해신청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학과반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텐데도 웬지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은아, 내 말 좀 들어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어보기는 할게요.' 새침데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기연OT에서 종교학과 13학년 민소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OT가 끝나고 나서도 언니와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LDI에 들어가서 말씀 양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딸로 20년을 살아왔기에 말씀을 기초부터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이 꽤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찬찬히 배우고 있자니, '하나님, 제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이 대체 뭐예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양육을 받고 있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쑤셔댔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제 웅덩이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웅덩이를 아주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제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무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서 오는 자기만족감을 좇다보니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자초했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로만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사람이라는 웅덩이를 한없이 깊게 파고 있던 저의 팔을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하나님께 빠져있었던 지난 시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가 짐작이 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삐져있었죠. 제가 너무 오랫동안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고 있는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나약한 사람인지라 자꾸만 웅덩이로 다시 돌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신 유요한 교수님과 황수연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말씀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글을 마칩니다.

강하은 (인문16)

연합사역 보고

서기연 문화사역: 캠퍼스에 사랑을 전하라!



작년 11월, 캠퍼스 기독교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당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단일 선본이었던 디테일이 '클린 캠퍼스'의 일환으로 '새맛이/학기 초 전도제재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선본에 따르면 이 공약은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학내 전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긴급 대의원회의가 소집되는 등 이 사안을 가지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3번의 대의원회의를 거치며,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결과로 나온 합의는 첫째, 학우들이 분명히 노방전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하지 못했고, 먼저 외부적 압력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런 고민의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 방식만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학우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4:5)'

우리는 이제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서울대기독교인연합(이하 서기연)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캠퍼스를 사랑하는 행동을 취해보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방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캠퍼스를 사랑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첫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캠퍼스의 소외된 이웃인 청소년노동자 분들을 섬기고 학우들의 관심을 함께 환기하는 것으로 마음이 모아졌다. 그 결과, 2016년도 1학기에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TF팀이 1월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성되었다.

TF팀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1) 학내 소외된 이웃인 청소년노동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낸다. (2) 학내 기독교인들(서기연)이 캠퍼스의 현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기독교인에 대한 학내 인식을 전환한다. (3) 일반 학우들이, 학

내에서 섬겨주고 계신 청소년노동자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4) 필요한 경우, 청소년노동자 분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내 여론을 환기한다. (5) 앞으로도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학생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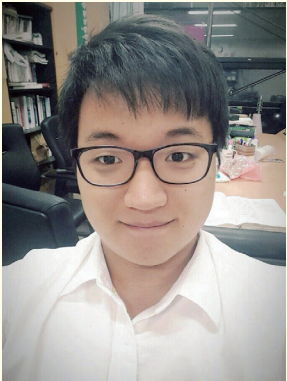
TF팀 활동은 서울대의 청소년노동자 용역업체인 ㈜윌드유니텍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셔서 참 은혜롭고 감사했다. 면담 이후, 4월에 단대별로 단대기연과 선교단체들의 담당을 정하여 청소년노동자 분들을 방문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전달하였다. 바쁜 시기에 쉽지 않은 섬김이었음에도 각 단대기연과 선교단체들이 마음 모아 섬겨주었고, 그 가운데 오히려 캠퍼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같은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5월에는, 이 마음을 학우들과 나누고자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게시물을 제작하여 중앙도서관 터널에 전시했다. 게시물 제작은 IVF 빛지부와 중앙위원 정효은 자매가 섬겨주었으며, 많은 서기연 지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 가운데 이 사역을 서기연 지체들이 모두 함께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TF팀으로서 문화사역을 진행하면서, 연합체 특성상 함께 모은 마음을 한 학기 내내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음을 많이 느꼈다. 구성원들이 매 학기 바뀌고, 대의원회의에서 나누어진 마음들이 각 단체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 하나의 사역을 한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연합이란 무엇인가, 또 연합으로서 한 캠퍼스를 품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역에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볼 때, 또 상황을 열어가시고 모든 헌신과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 캠퍼스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이 학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 사역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캠퍼스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아직도 캠퍼스 안에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 대의원회의에서 논의했듯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민하며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서기연이 되기를 바란다.

배소정 (불문12)

학생사역자 칼럼

서기연과 캠퍼스 사역에 관한 소고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졸업예정자인 이경건입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설렘을 품고 상경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러 학부 졸업과 대학원 입학의 앞두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 주기도문도

알지 못하던,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처럼 느껴졌던 소년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원 없이 섬김을 감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수도 없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듯한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규정하였던 옛 사람이, 거짓말처럼 자유케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처럼 대학 생활 가운데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서울대기독교연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게 서기연은 예수님을 믿으며 각자가 속한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멋진 기독교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었으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경계를 넘어 연합하고 하나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체감하는 학생들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캠퍼스 사역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때면, 진실로 하나님의 현존과 그 손길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섭리가 느껴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년여 간 직간접적으로 서기연을 섬기고 문서화 사역의 일환으로 문헌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민하게 된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서기연 조직 및 운영과 캠퍼스 사역의 방향성에 대하여 소망하는 바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기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첫째로 개별 선교단체와 서기연 간의 유기체적 연합의 원리(엡 4:15-16)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캠퍼스 사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주체는 개별 선교단체입니다. 전도와 양육이라는 사역의 두 측면을 캠퍼스 내에서 가장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합체의 필요성은 개별 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캠퍼스 전체 층위의 사안에서 발생합니다. 캠퍼스 내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는 개·종강예배나, 기독교인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단 대처사역,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사회를 대면하여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 등 학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체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연합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 및 서로의 필요를 앞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기연에서는 개별 단체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캠퍼스에서 기독교인들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우선하되 회원 단체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야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연합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기연은 개별 선교단체를 경시하고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역 주체와 같이 행동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사역을 가능하게 할 뿐 장기적인 연합

의식의 고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단대기연과 과 기독교임(이하 단대기연으로 통칭)은 캠퍼스 사역의 열매이자 가능성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단대기연을 인도하는 학생들은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배운 바를 실제적으로 적용해볼 기회를 얻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는 학생사역자들이 눈물의 기도로 고군분투하며 이끌어가기에, 단대기연은 캠퍼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 같은 학과 친구들에 대한 관계성을 기초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소통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 각 학문 분야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단대기연이 가진 고유한 장점입니다. 비록 절대적인 역량은 선교단체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으나, 기존 선교단체들의 방법론과는 차별화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대생 1000여 명이 응답한 '학내 전도방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노방전도를 받아본 학생의 비율이 98%였던 것에 비하여 관계성을 기초로 한 전도를 받아본 학생이 15%에 불과했던 것은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관념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단대기연은 낯선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눅 10:36-37)을 가장 잘 실천하는 공동체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단대기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로, 서기연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서기연 규약 3조 2항은 회원단체 대표들이 매월 모이는 대의원회의가 기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때로는 서기연이 학부생이 아닌 타 선교주체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연의 재정구조는 학생들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연합체를 이루는 뼈대와 힘줄과 같은 규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서기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며, 학생들이 사역의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앞으로 서기연의 의사결정은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비롯한 타 선교주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대의원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 사역을 위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존과 같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는 서기연이 학생 단체로서 갖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은 캠퍼스 사역의 방향성에 관한 소망입니다. 먼저는 캠퍼스 사역의 역사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캠퍼스의 상황이 암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사역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의 흥망성쇠가 사역자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여 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야, 현재의 상황과 나의 책임만을 단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시야를 좁히는 자기중심성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진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에 있지만, 과거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역사적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기연이 1990년 창립 이후 사회참여적인 면모를 유지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음전도와 대형집회에만 집

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 힘을 잃었다는 역사적 고찰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무관심했던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둘째로, 학생자발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성령의 주권적 역사 하에 발생하는 운동성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의 권능의 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날이라고 말합니다(시 110:3).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 캠퍼스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선교주체들의 경험과 지위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많은 부흥운동이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편 미래지향성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당당한 캠퍼스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엔 학생들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의 존재 목적이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있다면, 캠퍼스 사역의 목적 또한 그 궤를 같이함이 마땅합니다. 서울대 캠퍼스는 어느 곳에 삶의 터전을 꾸리더라도 능동적인 사역자로 설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체성을 꽃피우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들은 캠퍼스 사역에서 되도록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기독교 지성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서울대생 본인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서울대생들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하므로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은 마땅히 차별화된 수준의 지성을 갖고 닦아야 하며, 이를 돕는 사역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캠퍼스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그러한 노력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학내 기독교공동체들이 복음주의의 일반적 특성을 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분히 오랜 시간을 들여 지성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적어도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시대정신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서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야말로 기독교 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제 지간의 모습 또한 발견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저의 생각을 나누어보았지만, 제 자신의 육신적인 아픔을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미약한 믿음을 다잡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 캠퍼스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요 17:21).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주의 청년들이 장차 한국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연을 통해 캠퍼스와 미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므로, 앞으로의 서기연 사역이 큰 확신과 위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경건 (화학교육11, 2015년 서기연 대표)

기독인 선배의 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분과 함께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과를 졸업한, 올해로 27살된 현지윤입니다. 먼저 2016년 신입생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치열한 입시를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걸음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진로' 고민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진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름의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계획은 이랬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바로 석사 유학을 가고 쉬지 않고 박사를 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들어와서 귀국 독주회를 하고 줄을 잘 타서 서울대학교에 자리를 빨리 잡고 교수가 되는 거야. 뭐 그 사이에 결혼은... 엄마가 27살 쯤 했으니까 나도 학부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좀 길게, 적어도 2년 정도는 하고 석사 같이 공부하고 결혼 하고 유학 가서 같이 박사 하고 같이 교수가 되면! 정말 좋겠지?'

만약 계획대로라면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잘 이루어 주셔서 저는 올 6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구요, 8월 쯤 같이 출국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 하하"라고 말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벌써 27살이고 남친도 없고 대학원은 가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해진 것 하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죠. 과거의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저는 실패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싶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고 여러분의 삶도 있는 그대로 귀하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지윤이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음악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도 알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의 열심과 욕심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대학에 입학했고 조이선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조이는 저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선물이자 제 신앙의 친정집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또 제 안에 감추어져있던 어둠과 왜곡들을 공동체 속에서 부대끼면서 직면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어떻게 덮어주시는지, 또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세워놓았던 계획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시도를

했어요. 클래식 피아노과로 들어왔지만 재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요 세션하시는 분께 찾아가고, 버클리 여름캠프도 갔다 오고, 서울대 재즈입문 수업도 듣고, 다른 학교 교수님께도 배웠어요. 원래는 재즈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학업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조이에서도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뭘 해야 할까'를 두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유학을 가야하나... 유학을 바로 가는 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걸까,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졸업 연주를 해야 해서 날짜를 뽑았는데, 12월 12일이었어요. 미국 유학 어플라이는 보통 12월 1일 정도에 다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학은 미루고 졸업 연주를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뜨잖아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 내내 저에게 가장 의미가 큰 공동체가 조이였으니까 후배들도 좀 더 보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내게 선물로 주신 조이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죠.

실제로 해보니 사역동문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새내기 케어, 말씀공부 인도, 대표들 챙기기, 한 학기에 한번이었지만 설교까지...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와중에 틈틈이 유학 준비를 하고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2013년 겨울 수양회에 갔는데, 그 때가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 동안 조이에서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주실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대학생활 하면서 나름 선교단체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고 졸업하고도 바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유학가지 않고 1년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좀 책임져 주시겠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로 들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 욕심대로 또 하게 될까봐 간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쉽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 1차 합격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붙으면 너무 좋아서 'OK!' 하나님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불순한 의도들이 남아있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대로 그냥 유학을 나가면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앞길도 탄탄하게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 그게 굉장한 위선이라는 생각. 그래서 1년 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취소 메일을 보냈어요. 가족들조차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를 그 때부터 실제로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을 '순종'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고 넓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로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기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역동문을 1년 더 했는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사로 나를 부르시는데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곳에 머무르려는 저의 안일함을 보고, 나를 부르시는 곳은 따로 있음을 믿으며 2년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제가 가진 음악적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현대음악 연주도 많이 하고 뮤지컬 세션도 해보고 기악 반주나 성악 반주, 찬양팀 등등 제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2014년 4.16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전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무기력했고 제가 해온 음악에 대해 회의감이 생겼어요.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그 거대한 슬픔 앞에 나의 음악이 오히려 그 슬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다면 정말 꿩소리 불과하구나... 당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기독교 연구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직접 그 아픈 자리에 찾아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접고 사회복지를 공부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음악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제가 음악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을 주셨어요. 저의 이야기로 제가 원하는 곡을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 노래를 통해 삶을 풀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예술에 대해 용기를 북돋워주시는 교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아름다움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책의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도구로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는 최근에 독일에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 내게 여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해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찾아내고,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연약함은 여전히 최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내가 알고 믿었던 것들이 희미해지는 듯해서 두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씩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7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도 참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아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바라며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실패도 실패가 아니며 끝인 것 같아도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또 저뿐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또 앞서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 용기 내어 한발 더 걸어갑니다.

말씀 한 구절을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 11:9)"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마음껏 꿈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 그 순간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순간들을 엮어서 삶이 되게 하실 거예요. 무엇이 될까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사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도하고 우리의 어둠이 아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테니까요.

현지윤(피아노09)

*이 글은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인문대-사범대-사회대-경영대-음대 연합 기독교수와 신입생의 만남》행사의 "기독인 졸업생의 신앙과 진로 특강"에선 나눈 내용을 다듬은 것입니다.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소식

Arise and Shine!
어두움을 지나 새벽으로

“찬란한 새벽은 어김없이 철
혹 같은 어두움을 지날 때 오는
것입니다.”

샬롬! 주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동대표 임재훈입니다.
작년부터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약속하시는 부흥의 시기가

다가왔으며 그 일에 저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올해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의 주제가 되는 대학원생들은,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숨 막힐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지도교수님의 호출이나 뻘뻘한 연구 일정에 온통 신경을 쏟느라 영적인 삶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실 내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나 고립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삶의 결과는 영적인 메마름과 고립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악 캠퍼스에 대학원생은 만 명 정도로 캠퍼스 인구의 무려 삼분의 일입니다. 따라서 캠퍼스 복음화와 영적 부흥에 있어서 대학원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메마름 속에 신음하는 그들을 품고, 중보의 성벽을 쌓으며 예배의 우물을 회복케 하여 그들을 온전히 소개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예배의 단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충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부르시는 이들을 깨우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날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올해 1월 15일부터 저의 멘토 권사님과 함께 아침기도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회관 한사랑 동아리 방에서 두 사람이 시작한 아침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캠퍼스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었고 그 날 이후로 출장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날 외에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기독교대학원생을 포함한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주중 매일 캠퍼스를 품고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 월 SFC, 화-목 CAM, 금 한사랑 동아리방에서 아침 7시 30분-9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사역의 큰 축에는 또한 수요열린예배 예배팀 섬김이 있습니다. 수요열린예배는 서울대 복음화와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교수님들과 많은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예배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예배팀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때때로 많은 기독교대학원생이 예배에서 헌신하고 있었기에 예배팀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는

그 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거룩한 삶의 제사를 통하여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주 예배 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여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붙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예배에 충만히 기름 부으셨고, 이를 예배팀을 비롯해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많은 이는 또한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수요예배의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기독교대학원생 사역에도 날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예배 팀에 3월 사이에 노래와 악기로 섬기는 이가 늘어나더니 규모를 제법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배 후 기도모임을 사모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더해져서 어느 날 보니, 예배 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스무 명 가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숫자에 안주한다면 주님 앞에 공허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팀에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임을 확신했습니다. 지금의 수요열린예배가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한 예배모임으로 세워져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했고, 예배팀을 중보팀과 새가족팀, 찬양팀으로 확장하여 섬길 것을 도전했습니다. 향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상 불평 없이 섬겨주는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역을 독려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배팀 개편의 시기에, 여러 이유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믿음이 전혀 없거나 처음 믿은 분들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안에도 기쁨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많은 새신자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늘어나며, 그 중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대학교회와 지역교회, 캠퍼스 내 선교단체에 접붙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캠퍼스의 부흥을 바라시며,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거룩한 삶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이 어둡고, 개개인의 이기심으로 단절되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대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듯,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이 세대를 보수하는 자들로 세우시며 그분의 영광을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된 학생 경건과 회개의 물결이 캠퍼스에 번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서울대 전체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불경건하고 소망을 잃은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한 가지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캠퍼스로부터 시작되는 노방찬양입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군대로 세우셨고, 이 일을 시작할 시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찬만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먼저 결단해야 한

다는 마음이 있어서 열두 명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간증을 덧붙이자면 처음 팀을 모집한 날 저녁 금요 철야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서 갑자기 ‘이 캠퍼스에 노방찬양을 하는 일들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오늘 그 팀이 모였습니다.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월요일 점심마다 자하연 앞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외국인들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스무 명 이상의 팀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돌발 상황에 시행착오도 겪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하게도 항상 좋은 날씨 속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결코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외치는 자가 많이 있고, 혹은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들도 있으나, 오직 예수께서 이 땅의 소망되시며 주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열린예배에 설교 중에 들은 ‘세상이 절로 악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악한 자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에 맞서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서울대 캠퍼스에 여전히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있고, 또한 학업을 열심히 하며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학생이 대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음란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그러한 풍조들이 누룩처럼 퍼져 나가 다음 세대를 무너트리고 이 나라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캠퍼스 노방 찬양은 첫째로는 예수께서 캠퍼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캠퍼스 위의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찬양예배입니다. 둘째로는 잠들어 있는 그의 자녀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생명이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으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고, 이 세대에 빛을 발하며 또한 불경건한 이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13일에 있었던 ‘기독교대학원생과 기독교수와의 만남’ 예배에 대해 나누고 글을 마치려 합니다. 자연대 500동 목암홀에서 있었던 이 초청예배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기독교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반응케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식사교제 후에 특강(법대 임용 교수님)과 특송, 찬양과 말씀(재료공학부 강신후 교수님)을 통하여 많은 대학원생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도전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단과대 연합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 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학원생만 60명 이상이 참석하여, 교수님·간사님·목사님 10여명과 함께 7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 모임을 통하여 캠퍼스 내에 단과대별 연합 기도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캠퍼스 부흥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성읍과도 같은 크고 작은 단과대별 연합 기도모임이 세워지길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재훈(물리천문학부 박사과정)

생활공동체 간증

손에 손잡고: 예수전도단 형제공동체 ‘연합’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 형제들의 공동생활 합숙소의 이름은 ‘연합’이다. 선배들께서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간과 재정을 들인 큰 헌신을 통해 시작되었다. 2014년 2월, 나는 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그 전에도 예수전도단의 일원으로서 연합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공동생활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

을 못하다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지자 연합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에 나는 학교 근방에서 잠자리가 생긴다는 생각 정도만으로 연합에 들어갔던 것 같다. 그야말로 당시 나에게 연합은 ‘하숙집’과 같은 개념이었다. 연합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그런 하숙집과 같은 곳이었다. 물론 친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공동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간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사를 앞두고 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연합의 인원이 줄면서 당시 살던 집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부동산을 전전하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곳마다 계약이 틀어졌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를 추진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비로소 집 알아보던 일을 멈추고 이사라는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기도가 쌓이고 나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이사에 관해 기정사실처럼 여겼던 생

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었고 곧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연합에 의도하신 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원이 줄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기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집으로 가길 원하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월세를 내야하는 집으로 이사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 과정을 통해 연합이 공동주거공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공간임을 피부로 느꼈다. 연합을 처음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연합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시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연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그분의 언약임을 느꼈다.

밖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남자들 9명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심중팔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희 안 싸워?", "조만간 헤어질 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너무나도 힘이 되고 즐겁다고. 동시에 생각한다. '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같이 느낀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사람과 평화와 친밀함을 갖는 것이 매번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연합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일들이 사실은 반복된다.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 나만의 쉼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되고, 화장실이 급할 때 누군가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슬플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지각으로 우리 모두가 지체될 때 화가 날수 있고 누군가 내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다. 나 역시도 연합에 살면서 우리 연합 식구들에게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인생에 다양한 굴곡을 선물해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혼자 살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웃음과 눈물과 추억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

나에게 연합은 나의 걸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는다. 우리가 뒤엉켜 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안부를 묻고, 생일에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글로 다 표현 못할 너무나도 다양한 인생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든든해져 가리라 굳게 믿고 있다. 더불어, 연합에서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의 기쁨은 참 크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서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져간다. 나 홀로 기독교 신앙은 존속되기 힘들고 이웃 없는 하나님 사랑은 모순일진대, 갈수록 발달해가는 스마트 기기와 더불어 친구가 되고자하는 인생의 1차원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인생의 4차원의 삶에 우리 모두가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합 패밀리에겐 심심한 사랑을 전한다. Love you bros♥♥♥

홍민기 (지역시스템공학 석사과정)

이 한 권의 책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과학과 신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연의 사실과 성경 말씀 중 어느 하나도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자연의 사실과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건전한 과학과 건전한 성경 해석은 항상 조화롭기 때문이다."

휴 로스 (Hugh Ross, 천문학자·신학자)

신앙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며, 양립가능하지 않다. (O/X)

진화 = 하나님 없음. 창조 = 하나님 있음. (O/X)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일 당시의 세계관이나 문화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O/X)

위 OX문제들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의 주요 논지에 따르면, 세 문장 모두 명백히 X이다. 진화와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신앙과 과학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양산했다. 신앙과 과학은 전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 관계를 이룬다.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를 선포하는 책이며,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쓰였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입학하면서 처음 맞닥뜨린 의문은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는가?'였다.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며,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창조과학의 주장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내가 배우는 과학의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다. '지금 우리 과에서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은 다 거짓말인가? 정말 창조과학의 주장이 맞다면,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의 공신력이 있다면 그 분들은 노벨상을 받고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내 안에서 맴돌았다.

대학에 입학할 때 갔던 새내기 신앙OT에서 우연히 이 책의 저자인 우종학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진화론'이라는 말 안에는 자연현상(진화), 과학이론(진화 이론), 세계관(진화주의)의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다. 진화는 말 그대로 생물의 종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연현상 그 자체이고,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진화이론이다. 이 과학이론을 통해서 누군가(진화주의자)는 이것을 통해 '거 봐! 신이 나설 자리가 없잖아!'라며 신을 부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

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은혜를 느낄 수도 있다.

'진화론'이라는 말 안에 무신론적 세계관을 집어넣은 그들에 대해 기독교는 '창조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유신론적 세계관을 집어넣고, 진화이론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싸움으로 만들었다. '지구가 45억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생물이 진화한다고 생각한다면 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선포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과학이론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의 갈등을 빚고 교회를 떠났다.

이에 대해 우종학 교수는 책에서 "사실 진화를 부정하는 크리스천들과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제한한다. 자연법칙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창조는 기적을 통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자연법칙을 따라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태평양에 새로운 섬들을 창조하시고, 우주에 새로운 별들을 만드시고, 임신한 여인들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방식은 일상적이 되었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의사 결정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졌다. 반면, 많은 크리스천은 여전히 전근대 시대에 머물러 있다. 삶에서는 똑같이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신앙의 영역은 웬지 과학과 유리되어 있다.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크리스천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의 진화를 밝혀내는 놀라운 과학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반면,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토대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이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년이라는 우주론과 천문학이 틀렸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이라는 지질학은 오류이며, 생물의 역사가 수백만 수천만 년이 넘는다는 생물학이 거짓이라는 근거 없는 정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도 귀 기울일 가치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반응을 낳았다. 예수의 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지구나 우주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과학에 대한 크리스천의 무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과학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다.

전투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인류는 생명체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생명체는 DNA의 생존을 영속시키려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 생명체는 단지 맹목적이고 냉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 설계와 목적, 선과 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무신론자들의 말에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유신론적 세계관은 인간의 존재의 미나 세상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세계관보다 형이상학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학자인 마크 놀은 저서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과학계에 기독교적 지성이 부재한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이나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우종학 교수는 이러한 지적 성실성의 문제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것을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충돌할 이유가 없다. 모순되어 보이는 과학과 신학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하여 이 자연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지성인으로써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모순되지 않는 진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무신론자인 기자가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는 과정을 통해 과학과 신앙에 얽힌 오해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제 외에 지적설계론, 창세기에 대한 담론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각 장의 끝에 생각할 문제와 더 읽을거리를 제시하면서 과학과 신앙의 영역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자연과 과학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깨닫고, 무신론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며 결국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꿈꾼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시 19:1, 현대인의 성경)

곽태에 (지구환경14)

2016년 1학기 캠퍼스 이모저모

○ 1학기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2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26동 대형강의실에서 열렸다. 예수기독교교회 백금산 목사가 “공부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고, 예배 후에는 학생회관 및 24동에서 단대별 식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2016 봄 <기독교신입생과 교수의 만남>

이번 학기에는 단과대학별 기독교신입생과 교수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4월 8일 금요일 저녁, 서울대 캠퍼스의 많은 단과대학에서 기독교신입생들이 교수님들의 특강을 듣고 이후 식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자연대, 약대, 수의대, 미대가 연합한 모임은 500동 목암홀에서 이루어졌다. 지구환경과학부 박정우 교수가 말씀을 선포했고 통계학과 박태성 교수가 “학문과 신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행사 이후에는 사반에서 단대별 식교제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공대, 생활대, 농생대, 자유전공학부는 39동의 BK다목적회의실에서 모였다. 재료공학부 김상국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의류학과 이주영 교수와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질의응답과 경품추첨 순서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친 후 38동 프리미엄 BBQ 카페에서 즐거운 식교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인문대, 사범대, 사회대, 경영대, 음대는 10-1동 교육정보관 103호에서 모임을 가졌다. 고준석 형제가 사화를 맡았고,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의 인사말과 장희진 자매(성악과 대학원), 류동훈 형제(화학부 대학원)의 특송이 있었다. 국어교육과 민병곤 교수와 음대 졸업생 현지윤 자매가 “대학생활과 신앙-교수 간증과 권면”, “기독교 졸업생의 신앙과 진로 특강”이라는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이후 연사들을 비롯해서 남승호, 조동준, 장정주, 주우진 교수가 패널이 되어 Q&A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단대별 식교제는 제2두레미담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은 지난 5월 13일 저녁 500동 목암홀에서 “기독교대학원생과 기독교 교수의 만남”을 주제로 《2016 서울대학교 기독교대학원생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법대 임용 교수의 특강, 연건&관악 기독교인연합의 특송, 재료공학부 강신후 교수의 말씀 선포(“하나님의 사람(왕상 18:30-40)”)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이후에는 500동 사반에서 단과대학별 식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축제 뒷정리 점검



지난 5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 간 서울대학교 축제가 진행되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2일 밤에는 축제를 마무리하는 폐막제가 진행되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서기연 지체들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캠퍼스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폐막제가 끝난 후 더러워진 잔디를 청소했다. 축제기획 동아리 “축제하는 사람들(약칭 ‘축하사’)에서도 매 축제 때마다 청소와 함께 한 서기연 지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인문대·사범대·사회대·경영대·음대<기독교신입생과 교수의 만남>



▲ 공대·생활대·농생대·자유전공학부 <기독교신입생과 교수의 만남>



▲ <2016 서울대학교 기독교대학원생의 밤>